

32.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앙고백

찬 송 :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02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요나 4장 1~11절

말씀묵상

선지자 요나는 악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도록 명령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니느웨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만, 그는 결국 니느웨로 오고야 말았습니. 하나님은 요나에게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가도록 이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1.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1-2).

요나는 니느웨성을 돌며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멸망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굶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으며 회개했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선 것을 보신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에게 자비로 응답하십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용서를 얻습니다. 회개로 뜻을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도 돌이키시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2.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입니다(2-4).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시기를 원했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진노할 기회보다 용서할 기회를 더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 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부끄러움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끼시는 분입니다(5-11).

초막 위로 무성히 자란 박 넝쿨은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벌레가 모두 갉아먹자 그늘도 사라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죽은 박 넝쿨을 아까워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십이만 명이나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와 달리 니느웨의 이방인들까지 아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맺는말.

우리를 위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적용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 복음을 전합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은 남신도회 선교(은행골 우리집)를 후원합니다.

2. 예배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었지만 교회는 좌석수의 10%까지 예배 인원이 허용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5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예배와 금요기도회, 주일예배(15일부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주일 2부예배는 되도록 백신 2회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목장별 전화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이 있습니다.

4. 교육부 여름행사

오늘 청소년부 여름수련회를 끝으로, 모든 교육부 여름행사를 은혜 중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교사들과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예배위원안내

대면예배가 시작되어 주보 2면 하단에 예배위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담당자께서는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교역자 휴가

정진영 목사 : 8/9(월) ~ 8/18(수)까지

7.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교우소식

현물 - 강단 화분 : 박상민·김영옥권사 가정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교육전도사 : 신새벽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지 휘 자 : 이영준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제117권 제 32호

2021. 8. 8

The ni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고후 6:1-2)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 031)751-7230

www.doonjeon.kr